

# 환경산업계 동향

## (주)한독이엔지, 중국 산동삼림그룹과 환경 보호 합자회사 설립



(주)한독이엔지(대표이사 황열순)은 지난 3월 17일 중국 산동성 치박시에 위치한 기업인 산동삼림그룹과 환경 보호 합자회사(Joint Venture)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인명은 “북경한서환보과기유한공사”이며, 한국측의 투자비율은 25%이다.

금번 합자회사 설립을 위해 양사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기술 교류를 통해 (주)한독이엔지의 기술력과 산동삼림그룹의 중국내 영업력을 결합하여 중국내 환경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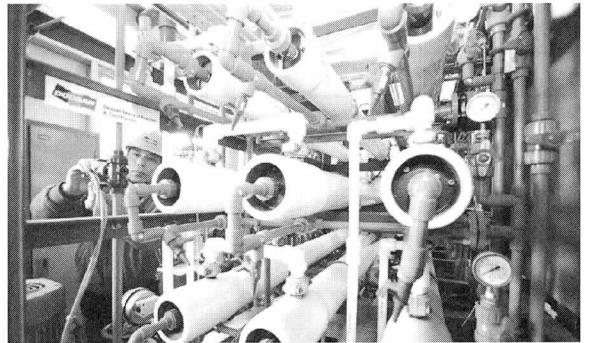
금번 합자회사 설립 조인식에 앞서 (주)한독이엔지는 중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산동성 최대의 석유화학회사인 제노석유화학(SINOPEC)회사의 초청으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이자리에는 왕건국 부사장, 축보근 공장장 및 왕기성 환경부장등 20명이 참석하여 200만 불 규모의 기술 수출 상담을 하였다.

산동삼림그룹은 PVC, PVC 첨가제, 전자모듈 그리고 티타늄등의 신형재료를 생산하는 하이테크형 기업으로 산하에 삼림신형건재유한공사등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이 2억RMB(한화 약240억원), 직원 360명 그리고 연간판매수익이 3억RMB(한화 약360억원) 규

모의 기업이다. 또한 최근에는 치박시에 중국 국가 863계획에 입각하여 대규모의 공업기지를 건설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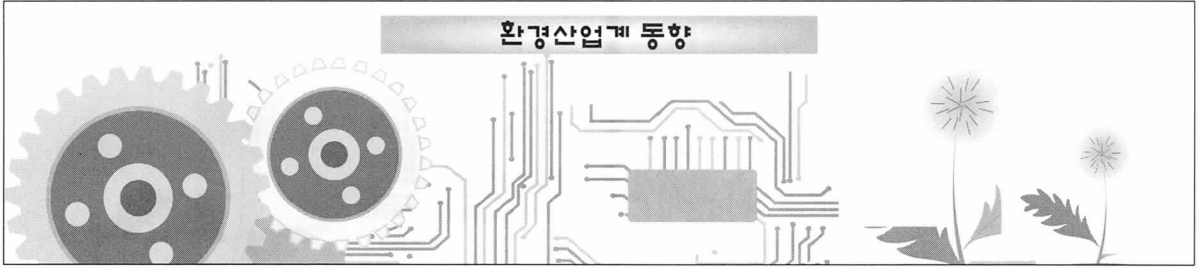
(주)한독이엔지의 황열순 사장은 2000년부터 중국 환경 시장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 결과로 이미 중국내 몇몇 석유화학기업과 환경 기술 수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중국도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중국의 환경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블루오션이라며, 금번 합자회사 설립을 기회로 중국 환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두산중공업, 독도에 담수설비 무상 설치



해수담수화 설비분야 세계1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독도에 담수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두산중공업이 지원하는 담수설비는 총 2기. 독도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등이 상주하고 있는 동도에는 기존 노후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게 되며, 어민 부부가 살고 있는 서도 어민숙소에는 신규로 담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창원공장에서 제작을 마친 담수설비를 독도에 설치하기 위해 현지로 출하했으며 오는 6월 준공예정이다. 독도에는 현재 동도에만 2기의 담수설비가 있으나, 설비가 노후되어 경비대원들과 등대관리원들이 생활용수 사용에 다소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서도 주민은 어선으로 동도에서 물을 길어와야만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담수설비는 현지 운전여건을 고려해 섬 지역에 적합한 RO(Reverse Osmosis, 역삼투압 사진) 방식으로 제작됐다. 인터넷 전용선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운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최신 설비다. 동도에는 하루 7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27톤 규모, 서도에는 하루 1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4톤 규모의 설비가 설치된다.

두산중공업 이남두 사장은 “독도의 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주민들이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수설비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만든 담수설비를 통해 이들이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 포스코, 300톤 탈린전로 준공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3월 21일 제강공장에서 정준양 사장, 오창관 제철소장, 설비 공급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이래 최초의 300톤 탈린전로 준공식(사진)을 가졌다.

이번에 신설된 탈린전로는 연산 150만톤의 FINEX 용선으로 조강을 증산하고, API재 등 극저린 고급강의 양산체제 구축 및 원가절감을 위해 지난 2004년 11월 착공하여 2년 5개월만에 준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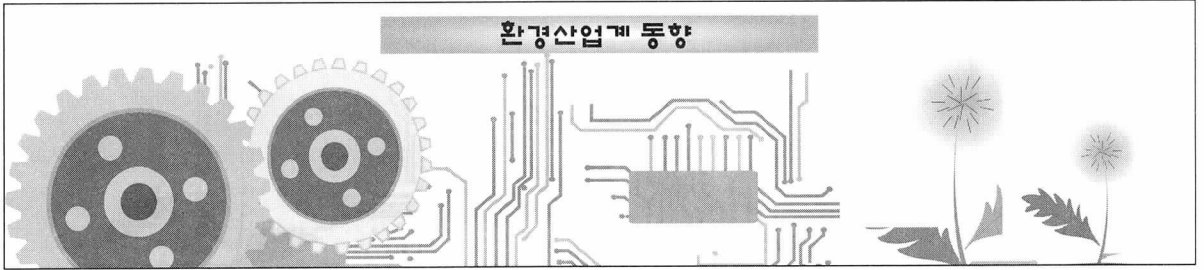
설비 규모에서도 300톤 탈린전로 1기, 450톤 용선기증기 1식, 배가스 처리설비 1식, 부원료 수송 및 투입설비 1식, 수처리 및 집진설비 각 1식 등 하나의 단일공장 신설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탈린전로는 용선 중의 인(燐)성분을 최대한 하향화해 API재나 TMCP재 등 품질향상을 통한 극저린 고급강의 양산이 가능하며, 기존의 전로 대비 부원료(생석회) 사용량을 15% 줄여 원가절감 및 친환경 조업체제를 갖추게 된다. 포항제철소 2제강공장은 이번 탈린전로 준공으로 조강 1천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설비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고급강을 양산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향후 포항제철소는 전략강종의 양적, 질적 Level Up은 물론 고급후판재의 전문적 양산이라는 특화전략을 마련, 무한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국철강협회, 소방설비배관용 스테인리스강 확대해야

우리나라도 소방설비 배관용에 스테인리스강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회장 박종대)과 한



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방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설비 배관용 스테인리스 적용 확대방안 연구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소방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소화설비 배관용 스테인리스 적용에 따른 각국의 동향과 연구개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화설비 배관에 스테인리스관 작용을 확대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 정재한 팀장은 '소화설비 배관용 스테인리스 적용 확대방안 연구과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소화설비 배관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적용하면 인장강도가 2배 이상 강해 내압에도 2배 이상 견딜수 있다"면서 "두께가 얇아 용접작업이 수월하고, 시공이 간편해 시공단가 측면에서 약 10%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소방법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할수 있도록 작년 10월 1일부터 제도화해 소화설비 배관용에 스테인리스강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2006년 11월 제3차 GEN-IV 기획위원회에서 SFR 시스템의 핵연료 프로젝트 참여범위(4개 Tasks, 13.3억)를 심의한 바 있으며, 이번 제4차 GEN-IV 기획위원회에서는 설계 및 안전 프로젝트, 기기설계 및 2차 계통 프로젝트의 참여 범위와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 제2차 GEN-IV 워크숍에서 두산 중공업(주) 및 한국전력기술(주) 등 산업체가 요청한 바 있는 초임계압 냉각로(SCWR)의 공동 연구개발에 본격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위원회를 통해 한국이 참여중인 SFR 시스템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범위 및 예산을 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SFR 시스템의 본격 개발을 위한 바탕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 과학기술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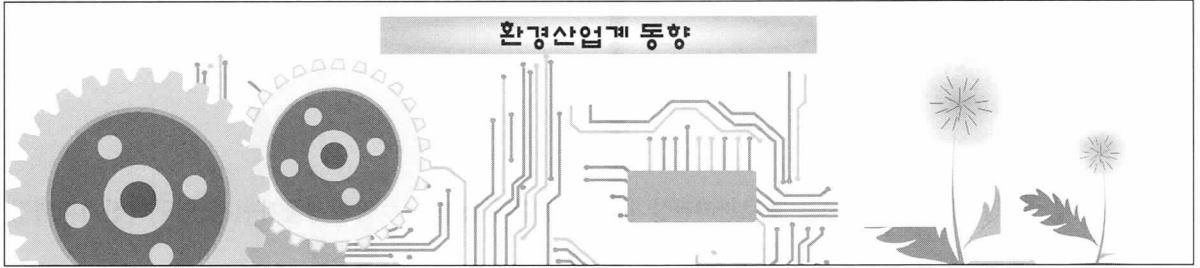
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기획위원회'를 열고 소듐냉각고속로(SFR) 시스템 연구개발 참여범위 및 예산을 심의했다. 또 초임계압냉각로(SCWR) 시스템 연구개발의 본격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작년 우리나라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후보 노형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VHTR)의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임젠, 바이오에탄올사업 가속화



(주)임젠(대표이사 김기동)은 지난 3월 20일 인도네시아 툴랑바왕(Tulang Bawang) 지방정부와 카사바 재배 및 바이오 에탄올 공장건설을 위한 현지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30만 헥타아르의 토지 무상임차 계약(Agreement)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탄



소매출권(CDM) 사업의 실행 첫발을 내디딘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임젠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바이오에탄올의 개발, 생산, 판매사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전폭 지원대상 외국회사로 선정됐다. 1차로 람퐁주 툴랑바왕(Tulang Bawang)군의 토지 6만168 헥타르의 무상임차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총 30만 헥타르를 최장 60년간 무상임차 받기로 했다. 특히 임젠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여타 기업들과 달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양해각서(MOU)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계약(Agreement)를 체결, 빠르게 사업을 구체화시키게 됐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체결한 임젠의 토지 무상임차 계약은,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IT, 산림, 에너지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협력 확대방안을 골자로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이 실질협력으로 진행되는 시범사례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코스닥 등록회사인 엑사이엔씨 및 KDN스마트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임젠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공동으로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다년 간의 에탄올 발효균주 및 효소 배양경험을 바탕으로 온도 상승에도 에탄올 정제 능력이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오는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30만 헥타르 토지에서 20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 인도네시아는 물론 EU, 일본 및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CDM)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임젠의 김기동 박사는 "현지법인 출범을 계기로, 임젠의 뛰어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 카사바를 대규모로 경작하고 바이오에탄올을 생산, 고용증대와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면서 "한국과 인

도네시아 간의 산업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외국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한진중공업, 6500TEU급 컨선 5척 수주



한진중공업은 그리스의 Danaos Shipping사로부터 6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총 4억9500만불에 수주했다고 지난 19일 공시 및 발표했다.

이번에 수주한 65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길이 300m, 폭 40m, 깊이 24.6m 규모로 25.6노트의 속력을 내는 최첨단 경제선형으로 2006년도 세계 해운 및 조선 전문지들로부터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선박은 한진중공업이 설계, 건조해 오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Danaos사는 1972년 설립 이후 세계 해운시장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의 최대 컨테이너선 선주사로 한진중공업과는 이번이 첫 거래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그리스지역 진출에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향후 그리스 시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물량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